

호랑이 만나러 화랑에 가볼까?



서공임 작가의 '한 남자 가슴에 별을 품고 앉아 있 스탠드' (왼쪽). '지는 꽃 피는 꽃 나비처럼 나뭇가리다' (오른쪽).



2010년 경인년은 60년 만에 찾아오는 백호의 해답게 새해부터 흰 눈들이 목을 경결(耽耽)하게 만들어 주듯 온 세상을 덮었다. 호랑이는 예부터 우리민족에게 각별한 동물로서 수호의 신으로도 불리며, 풍요와 희망을 상징했다. 그래서인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호랑이와 관련된 상품들과 이벤트 행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화계 역시 호랑이와 관련된 각종 전시와 행사들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웅장스럽고 늠름한 호랑이의 모습부터 우스꽝스럽고 해학적인 호랑이 표정까지,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다양한 호랑이 전시행사를 즐기면서 백호의 푸른 눈처럼 빛나는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 보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nia.com

문화가 서공임 작가는 경인년을 맞아 100마리 호랑이들을 세상에 내놓아 시킨다.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명품관 예비뉴엘과 롯데갤러리(02-726-4428)에서 2월 28일까지 '100마리 호랑이' 전을 연다. 서공임 작가는 전통문화 호랑이와 현대적인 호랑이 100마리를 재해석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느낌으로 작품을 연출했다. 이웃집 아저씨나 동네 할아버지 같은 친근한 한국 호랑이, 까치나 토끼와 어울려 있는 익살스러운 호랑이까지 다양한 호랑이들을 선보인다. 이송자 화백은 자신의 결혼 30주년을 맞아 '내가 만난 호랑이' 전시를 연다. 이 화백의 사랑이 듬뿍 묻어나 있는 호랑이 모습은 경건하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이송자 화백의 '내가 만난 호랑이'전은 인사동 경인미술관(02-733-4448)에서 1월 20-26일 전시된다. 또 서울 인사동 갤러리 북스(02-737-3283)는 3월 2일까지 두 달간 '호랑이 미술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윤성기 작가의 '맹호 백태'전을 시작으로 △조병원의 호랑이전(1월 13-24일) △10명의 카툰리스트들이 선보이는 '만화로 보이는 호랑이전'(1월 25일~2월 7일)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인 안장현의 '왕릉의 들호랑이 사진전'(2월 8-20일) △호랑이 민화, 민속 소품전(2월 21일~3월 2일) 등 5회 연속으로 다양한 장르의 호랑이전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신광섭, 02-3704-3152)은 3월 1일까지 '변신(變身), 신화에서 생활로' 특별전을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2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생활문화에 깃든 호랑이 모습과 상징체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조망해 보는 자리이다. 신격화된 호랑이의 모습, 벽사(辟邪) 기능의 호랑이 모습, 설화속에 등장하는 호랑이 모습 등을 소개한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 054-740-7540)은 '경인년, 새해맞이 작은 전시 호랑이'전에서 호랑이 모양 허리띠고리, 까치호랑이가 그려진 청화백자 항아리를 비롯해 호랑이무늬 청화백자 왕사발 등을 3월 21일까지 전시한다.

지금까지 호랑이를 단지 눈으로만 봐야하는 전시였다면 호랑이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됐다.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종천, 032-590-7026)은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호랑이의 생생한 모습을 만져볼 수 있도록 호랑이 박제표본 전시를 연다. 평소 안전상의 이유로 먼 곳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호랑이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기회이다. 국립생물자원관 김종천 관장은 "호랑이의 생태적인 특성과 우리 전통문화 속 호랑이의 모습을 통해 호랑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호랑이 박제표본 만져보기 전시와 더불어 호랑이 관련 자료 전시와 체험활동도 함께 제공한다. 전시 관람은 2월 28일까지이다.

니르바나 '화폐' 테마 음악회

육망의 상징인 돈, 인간이 만들어낸 순수예술 클래식, 이 둘이 만나 하모니를 연출한다. 니르바나 솔리스트 앙상블(단장 강형진)은 2010년의 첫 기획연주로 화폐에 등장하는 작곡가들을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들려준다.

세계화폐연구소장인 배원준씨의 '화폐 컬렉션'을 모티브로 한 이번 공연은 지폐인물에 선정된 작곡가들을 테마로 선정해 음악회를 연다. 연주회에는 배원준씨의 컬렉션에 들어 있는 작곡가 20여 명 중 우리 정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쇼팽, 모차르트, 드뷔시, 슈만, 스테타나 등 5명의 작곡가를 선정해 '렉처 콘서트(Lecture Concert)' 형식으로 진행한다.

니르바나 필의 강형진 단장은 이번 공연에 대해 "화폐라는 낯익은 매개체를 통해 음악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니르바나 필은 기존에도 지휘자가 작품해설을 하는 연주회를 자주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곡가들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물론, 연주자들이 해당 레퍼토리의 메인 테마, 연주기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 공연의 이해와 재미를 높여줄 예정이다.

강 단장은 "화폐에 등장하는 작곡가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업적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화폐에 등장했다고 해서 모두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은 아니다"라며 "돈과 인생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런 삶의 아이러니를 이번 연주회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원준씨의 화폐 컬렉션 일부가 이번 공연을 위해 공연장에 전시되며, 니르바나 솔리스트 앙상블의 '화폐로 만나는 클래식 이야기'는 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세종제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선술 속에서만 존재하던 음악인들을 화폐를 통해 만나는 이색적인 즐거움을 이번 연주회를 통해 느껴보자. (02)718-4599

이은정 기자

'불수'로 빛나는 청화백자展

<佛手>

서울역사박물관이 우리 유물에 표현된 식물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 3월 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 전시되는 '불수(佛手), 그 손에 담긴 향기로운 꿈'은 봄의 모란, 여름의 연꽃, 가을의 들꽃에 이어 불수(佛手)로 마지막 전시를 장식한다. 이번 전시에는 불수로 표현된 백자 17점이 소개되며, 이들은 모두 조선 후기의 작품들로 불수문이 도안화되고 장식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자청화불수문대함'은 함(盒)의 뚜껑과 함신(盒身)의 전면이 불수로 도안화돼 있으며, 장식이 백색과 청색으로 조화를 이뤄 이색적인 맛을 낸다. 이밖에도 불수는 병, 항아리 등에도 등장해 길상적 의미로 상징된다.



불수는 운향과 굴 나무속에 속하는 상록활엽수종으로 열매 모양이 부처님 손을 닮았다 해 불수(佛手)라 불려진다. 열매치고는 다소 기괴하나 불(佛)은 복(福)을 수(手)는 수(壽)와 각각 중국식 한자어 발음이 유사해 복과 장수의 의미로 표현된다. 또 불수는 방향성 식물로 청나라의 서태후가 자금성에 자신만의 공간을 불수로 가득 채워 향수로 애용하기도 했을 정도로 향이 일품이다. 중국에서는 새해를 맞아 지내는 제사에 불수를 제수로 올리며,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식물이 여겨진다. 새롭게 새해를 맞이한 경인년에, 복과 장수를 담은 향기로운 불수를 감상하며 한해를 염원해 보자. 02-120 이은정 기자

19일까지 허유지 사경작품전 열려

사회학자 윌베르도 에코는 "현대성은 전통과 현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탄생된다"고 말했다. 주목받지 못하는 전통을 끊임없이 현대와 상호조율해 나아가는 대목이다.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면서 전통이라는 외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허유지 작가다. 허유지 작가(사진)는 20여 년간 서예라는 길을 걸다 몇 년 전 사경작품을 하면서 제5회 서예문화대전 사경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부처님 진리의 말씀에 집중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죠. 오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경수행에 정진하다 보면 허무가 짧아진답니다."

허유지 작가는 "사경을 할 때는 번뇌나 망상 따위가 생길 틈이 없다"고 말한다. 경전을 조성할 때는 무엇보다 작품에만 정신을 집중해야 좋은 작품이 탄생되기 때문이다. 이런 허유지 작가의 사경작품은 1월 13-19일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에서 관람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이 가장 큰 적이라 말씀하셨죠. 그동안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 한 저의 사경작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청정한 연꽃으로 피어나 행복했기를 바랍니다."

사경작품이 완성됐을 때에는 본인도 모르게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는 허유지 작가. 흔들리지 않는 한 걸 같은 마음으로 써내려간 그의 작품을 통해 다시 한 번 올곧은 부처님 말씀을 되새겨 보자. (02)736-6347 이은정 기자



비누독을 완화시키는 삼베웨이셀타올



삼베웨이셀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월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헴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웨이셀타올 세안법

- ① 삼베웨이셀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④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⑤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력제품임
- 용량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월
- 재질 - 헴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탕탕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한지목욕시사용, 건조마사지용
- 규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헴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명숙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향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용량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헴프사,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항균·향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용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용량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헴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탕탕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한지목욕시사용, 건조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9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바닥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등글개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용으로 건조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각도 예민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방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조, 습포 마사지를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조,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조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염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않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증가하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겨울철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걸립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얼어있으므로 때가 안 걸립니다.
- 한지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삼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 구성 : 삼베웨이셀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